

“웰컴 투 여수” 여수시민들, 아프간 특별기여자 ‘환영’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임시생활을 하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27일 충북 진천을 떠나 전남 여수에 도착하자 여수해경교육원 앞에 나온 여수시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웰컴 투 여수(Welcome to Yeosu~), 아프간 특별기여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힘내세요! 대한민국 여수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임시생활을 하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27일 충북 진천을 떠나 전남 여수에 도착하자 여수시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40분께 미년선자 238명 등 79가족 391명의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버스

13대에 나눠타고 여수시 오전동 해양경찰교육원에 도착했다.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해양교육원에 머물며 앞으로의 생활을 위한 정착 교육을 받는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여수 해경교육원에 도착하는 순간 오후 내내 교육원 앞에서 기다리던 여수시 오전동, 만흥동 주민들 50여 명은 환호와 박수, 손 인사로 반갑게 환영했다.

“따뜻한 여수서 적응 교육 잘 받고 정착도 잘하길 기원” 아프간 어린이, 버스 창밖 손 내밀어 환영 인파에 화답

법무부 강성국 차관과 직원, 박현식 여수 부시장과 시 공무원,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도 교육원 앞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했다.
 여수시 주민자치위원과 이통장협의회, 주민들로 구성된 환영단은 환영의 뜻을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고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을 환대했으며, ‘아름다운 남해바다와 기후조건이 따뜻한 여수에 머무르는 동안 편안하게 지내라’는 격려의 말이 쓰인 팻말을 들고 여수에 있는 내내 함께 하자라는 뜻을 밝혔다.
 장혜훈(56) 만덕동통장협의회장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은 최소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줄 계획이며, 여수시와 해경교육원의 협조가 있을 경우에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여수에 머무는 시간 적응을 위한 교육을 잘 받아 잘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효숙(63·여) 만덕동민은 “공기 좋고 따뜻하고, 음식도 맛있는 여수의 매력을 한껏 느끼고

고 원하는 곳으로 가시면 좋겠다”면서 “작은 도시지만 아름답고 정돈된 여수를 찾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곤(68) 오전동 통장은 “먼저 여수에 도착한 아프간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드린다”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해경교육원에 입소해 단기간이지만 교육 잘 받고 빠른 시일 내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찾아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병태 만덕동장은 “정부정책에 따라 여수시에 오게된 것을 환영하며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여수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돕겠다”면서 “환영해준 만흥동과 오전동 주민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현식 여수 부시장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환영해준 여수시민과 오전동, 만흥동 주민들에게 감사 드린다”면서 “특별기여자들이 여수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경과 면밀히 협조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여수해경교육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 곳곳에는 한글과 영어, 아프간어로 쓰인 플래카드가 20여 장 걸리는 등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환영하는 여수시민들의 뜻이 그대로 전달됐다. 길거리에서도 지나던 행인들이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며 보였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도 버스 안에서 손을 흔들며 여수시민의 환영에 화답했다.
 해경교육원을 정문을 통과할 때는 버스에 탄 아이들이 정문을 열고 밖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며 보이기도 했으며, 일부는 창밖으로 웃음을 보여주는 기여자들도 눈에 띄었다. 대부분 차 안에서 밖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이들은 지난 8월 27일 충북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본원에 입소한 지 두 달 만에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옮겨왔다. 교육원의 교육 시설과 가족 단위 주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한국 정착에 보탬이 되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에서다.
 해양경찰교육원에 입소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2단계 교육을 받는다.
 여수=오상호기자

노태우 마지막 길, 5·18 유족에 용서 받았다... “전두환이면 안 왔겠지만”

장남 재현씨, 수차례 광주 찾아 5·18 묘지 참배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유족이 찾아와 조문했다.
 박남선 광주 5·18 유족대표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노 전 대통령에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전두환씨가 돌아갔다면 저는 오지 않았을 테지만, 5·18 광주 학살의 만행에 대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차례 자녀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해왔다”며 이날 빈소를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용서를 구했고 이제 더는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을 물을 수 없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은 아들인 노재현 변호사 통해서 수차례 광주 학살에 관한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거듭 밝히며 “물론 본인의 욕성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 본인이 직접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병석에 누워있기 때문에 올 수 없어서 아들인 노 변호사가 광주를 방문했다고 전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이어 “전두환씨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광주 학살에 대한 사죄표명을 하고 돌아가신 유족들이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

르는 데에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면 굳이 국가장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남인 노 원장은 영정 앞에 서서 취재진에 목례 후 아버지의 뜻을 전했다. 그는 박 대표의 조문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이 했던, 또 그 이후 국가에 대한 생각이 많고 책임이 크셨다. 때문에 잘했던 일, 못했던 일 모두 본인의 무한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고 고인을 회고했다.
 노 원장은 “특히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나 본인 재임시절, 그렇지 않았을 때 일어난 여러 일들에 대해 책임과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고 역사의 나쁜 면은 본인이 다 짚어지고 간다. 이후 세대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말을 평소와 하셨습니다”고 전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에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씨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한 뒤 노재현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위로하고 있다.

노 원장은 “(아버지는) 재임하기 전부터, 특히 책임하자마자 광주 5·18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된 특별법도 제정하셨다”며

“5·18 관련 처벌도 받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 본인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동취재본부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워킹레일

요양원 061)395-2580
 주·야간보호 061)394-0123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수시모집 (경력인 우대)

신세계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장성을 방울샘길 12 (장성교육지원청 앞)